

본당 소식

2024년 7월 생활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시편 23.1)”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 한인성당 방문

- 일시: 2024년 09월 22일(주일), 11시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님께서 로마 사도좌 방문 (Ad limina)을 마치고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십니다.

♣ 견진성사 대상자(각 구역별)

-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내 견진성사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8월 25일(주일)까지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견진 교리 일정

- 매주 9시 30분, 오라토리오

9월 1일(첫째 주)	9월 8일(둘째 주)	9월 15일(셋째 주)	9월 22일(견진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7성사와 성령 칠은	신앙생활(기도)	예식 연습

♣ 본당 주임 휴가 일정(8월 19일-30일)

- 8월 25일 본당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현지 본당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김우진 크리스티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99,90€ • 교무금 €

전례 성가

입당 : 1 (나는 믿나이다)

봉헌 :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98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 : 4 (찬양하라)

전례 봉사

이번 주일(28일)	다음 주일(8월 4일)
1독서: 김우진 크리스티나	1독서:
2독서: 윤선재 가우디아	2독서:
복 사: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7월 28일 (녹)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미사 전례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42-44)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 빵 스무 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 -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1-6)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요한 6,1-1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이와 함께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며, 세상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국가의 기본법을 언제나 깊이 새기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기도드리오니, 그들을 굽어살피시어, 내면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생활하여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모습을 간직하며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수난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